주간 보험 동향

2001.2.26	동향분석팀	제70호

1. 금주의 Highlight

◆ 지역 · 계층 불균형 심화

2. 금융동향

◆ 금리 : 전주대비 0.53%p 상승

◆ 환율 : 원/달러 상승, 엔/달러 상승

◆ 주가 : 전주대비 3.5% 하락

3. 보험산업 동향

◆ 4개 손보사 시장점유율 70% 초과

◆ 은행 · 보험 퇴직신탁 2라운드

◆ 손보사 3개사 부실 지정

◆ 3월부터 개인연금 계약이전 가능

KIDI 보험개발원
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

1. 금주의 Highlight : 지역 · 계층 불균형 심화

□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과 고용은 물론 도로와 의료 등 사회기반 시설, 정보화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에서 지역간 · 계층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.

- o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지역별 소득세 납부 실적은 전국 평균을 1백으로 보았을 때 서울이 275.3으로 가장 작은 전남(28.8)의 9.6배에 달하고 있어,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서울(220.8)과 전남(38.1)의 격차가 5.8배임을 감안하면 3년새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
□ 삼성경제연구소가 1분기 소비자태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계층간 생활형편격차 역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생활형편지수 격차가 18.7p로 전분기(13.1p)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
- o 이러한 격차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분기 16.9p 보다 더 큰 수준이며, 지난해 4분기 이후 격차의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.
- o 또한 소비자들의 향후 물가에 대한 예상을 나타내는 물가예상지수는 올 1분기에 78.3(전분기 77.1)을 기록해 물가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OECD 보고서는 지역별 컴퓨터 보급대수와 인터넷 사용 정도, 관련 예산의 크기 등을 종합한 정보화 지수로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볼 때, 서울(169.5)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낙후한 광주 · 전남(56)의 3배 가량 된다고 지적하였음.

- o 이밖에 도로와 철도, 항공,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이 서울과 부산 축에 연계된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,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서울 일원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하였음.

□ OECD는 이 같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간 격차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, 지방분권화 추진,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개선 등을 꾸준히 실행해나갈 것을 제안하였음.

2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바닥권 인식 확산과 국고채 시장 급랭에 동조화 현상으로 공황에 가까운 투매현상을 보이며 상승세 시현. 전주 대비 0.53%p 상승.
- 국채 금리는 정책 당국자의 국채시장 과열 경고 발언과 콜금리 인하 불필요 시사 등으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며 매물 출회가 늘어나며 큰 폭의 상승세 시현. 전주 대비 0.68%p 상승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	19일	20일	21일	22일	23일	전주대비
회사채	6.58	6.58	6.79	6.86	7.04	+0.53%p
국 채	5.40	5.40	5.72	5.66	6.00	+0.68%p

□ 환율

- 원화는 국내외 주가급락에 시중금리 급등세가 가세해 불안한 자금시장의 영향으로 약세 시현.
- 엔화는 4년만에 적자를 보인 日 1월 무역수지 발표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속, 닛케이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주말 미국 주가불안, 일본기업들의 해외수익 본국송금 등에 따라 소폭 강세 반전.
- 유로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유로화 매입세를 촉발했던 터키 정국불안 우려 감소와 'strong dollar policy' 지지를 재천명한 Lindsey 미 경제수석 발언의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하다가 주말 강세로 반전.

주요 환율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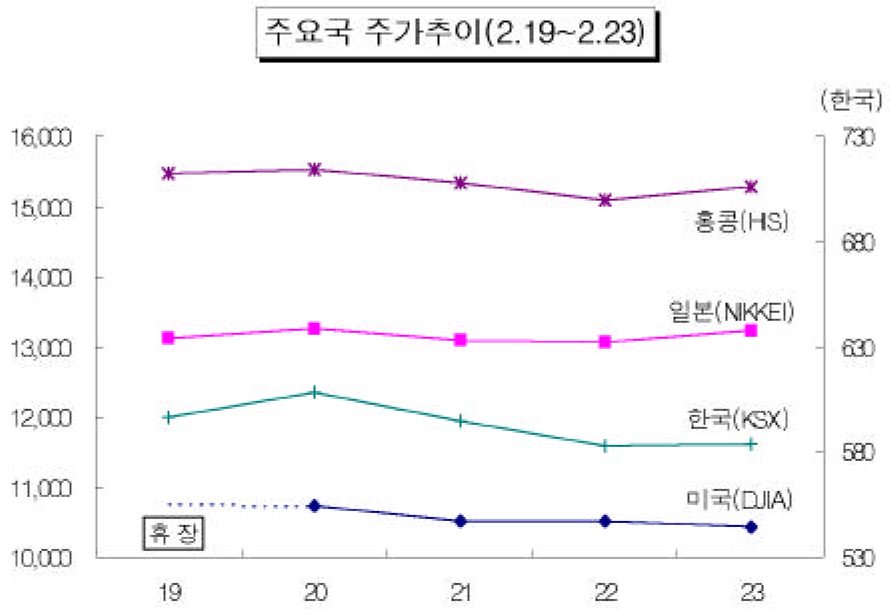
구 분	19일	20일	21일	22일	23일	전주대비
원/달러	1,246.90	1,235.80	1,238.00	1,244.50	1,248.50	+5.00
원/100엔	1,075.38	1,066.72	1,063.57	1,071.46	1,068.01	-7.68
엔/달러	116.04	115.70	116.60	116.95	115.82	+0.36
달러/유로	0.9214	0.9126	0.9090	0.9046	0.9177	-

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미국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시장불안감등으로 금리 · 환율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,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며 약세 시현.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3.5% 하락.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과 대형기술주들의 하락 여파, 전망치를 상회하는 지난 1월중 소비자물가지수(CPI) 발표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감 작용으로 하락세 시현. 전주대비 3.3% 하락.
- 일본은 0.5% 상승.
- 홍콩은 2.2% 하락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　분	19일	20일	21일	22일	23일	전주대비
한 국(KSX)	596.67	608.74	594.53	583.41	583.52	-21.40
미 국(DJIA)	-	10,730.88	10,526.58	10,526.81	10,441.90	-357.92
일본(NIKKEI)	13,119.59	13,248.36	13,100.08	13,073.36	13,246.00	+70.51
홍 콩(HIS)	15,490.96	15,527.36	15,351.51	15,098.64	15,280.56	-349.75



3. 보험산업동향

□ 4개 손보사 시장점유율 70% 초과

- 손해보험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삼성, 현대, LG, 동부 등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70%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.
- 삼성화재의 점유율이1.6%포인트나 오르며 28.7%를 기록, 30%대에 육박했고 이밖에 동부화재가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을 크게 높이면서 LG화재와의 격차를 낮음.
-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, 현대, LG, 동부 등 대형손보사들의 지난해11월말 현재 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4개사의 점유율이 70.8%로 지난 99년말 68.3%보다 2.5%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.
- 손보업계에서는 "지난해 업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유지돼온 상위사들의 점유율이 특별한 영업전략 없이도 상승하게 됐다"라는 분석임.

□ 은행·보험 퇴직신탁 2라운드

- 기업체들의 연말결산을 앞둔 지난해 12월 퇴직신탁(보험) 시장을 놓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은행권과 보험사들이 이번에는 3월말 결산법인들을 상대로 또다시 경쟁이 치열해짐.
- 그 동안 종퇴보험을 독점적으로 취급해 왔던 보험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수익률과 다양한 서비스 등을 무기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.
- 은행의 경우 평균 운용수익률이 9~10%대로 7.5% 안팎인 보험사들보다 금리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한데다 거래기업 및 개개인에대한 서비스도 다양하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으며,
- 아직까지는 보유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사들도 은행권이 퇴직신탁 시장을 잠식해 나가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기존 거래고객의 이탈 방지와 신규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.

□ 손보사 3개사 부실 지정

- 금감위는 2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대한, 국제, 리젠트, 화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제일화재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였음.
- 이에 3개 손보사는 다음달 3일까지 금감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, 이후 부실 금융기관, 경영개선명령이 확정되면 최종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회를 갖게 될 전망임.
- 그러나 손보 3개사가 최종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(P&A) 등의 방식으로 퇴출이 결정됨.
- 세 회사는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자산 및 부채 실사에서도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국제화재(-5.0%)와 리젠트화재(-1백13.5%)의 지급여력비율은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.
- 한편 작년 11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제일화재는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인력을 10% 줄이고 3월말까지 3백80억원을 증자할 계획이다.

□ 3월부터 개인연금 계약이전 가능

- 금감원은 25일 금융기관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허용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을 위해 전산프로그램 변경 및 계약이전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계약이전을 허용하기로 정하였음.
- 이에 따라 3월부터 기존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생보사의 개인연금저축은 제외되며, 개인연금저축을 올해부터 도입된 연금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.
- 개인연금저축은 그 동안 가입자들이 취급 금융기관 변경시 해지로 처리됨에 따라 과거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음.
- 계약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되 이전금액은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며, 계약이전시 해지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.